

충북학누리

CONTENTS

01	여는글 충북지역 현안과 충북학의 역할 청주대학교 교수 김양식	02	05	디스커버리 충북 History Geographic	14
02	대중문화와 충청북도 지자체 마스크트 캐릭터 오수민 충북학연구소	04	06	충북학 연구소 동정	15
03	한시로 읽는 충북의 문화공간 불우(不遇)의 천재시인 만주(晩洲) 홍석기(洪錫箕)와 후운정(後雲亭) 최병철 충북학연구소	06	07	충북 지역학 별거 이슈	16
04	로컬스토리 #단양 #죽령_산신당 #다자구할미_전설	11	08	충북학 사업 홍보 충북학 원고 모집	18



〈충북학누리〉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발행처 충북학연구소

발간 총괄 정삼철 (충북학연구소장)

기획·편집 최병철 (충북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오수민 (충북학연구소 위촉연구원)

통권 3호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

홈페이지 <http://csi.cri.re.kr>

디자인 (주)픽셀즈

발행일 2021.07.01.

01 충북지역 현안과 충북학의 역할



글: 청주대학교 교수
김양식

오늘날 현대사회는 20세기 산업사회와는 질적으로 다른 시대로 전환되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포스트모더니즘시대, 지식정보사회, 뉴노멀시대 등으로 부르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포스트코로나시대 4차 혁명에 따른 놀라운 사회변화가 메타버스를 타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문명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한 변화의 특징 가운데 뚜렷한 점은 지역의 부상이다. 이것은 세계자본주의체제가 국가를 해체하면서 그 하위개념이었던 지역이 직접 세계와 소통하고 교류하기 때문이다. 종래 국가 아래에서 폐쇄적인 환경에 놓여 있던 지역은 무한의 개방적인 존재로 전환되었고, 수동적인 위치에 있던 지역은 능동적인 주체로 부각되었다. 그에 따라 각각의 지역은 지역의 고유성, 정체성, 차별성 등을 찾아내 세계화에 주체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이 활발히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충북학'과 같은 지역학이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지역학이 일정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주의와 세계화에 대응한 새로운 대안공간으로서의 지역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지역 중심의 새로운 공간질서를 창출하기 위한 이론과 실천의 접합학문으로서 역할을 해야만 한다.

특히 지역 중심의 지역학은 지역공동체의 원리와 이념을 찾아내고 재구조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의 삶의 뿌리와 숨결, 문화 연구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지역 주민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재발견과 성찰을 통해 실존의식을 강화하고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역 정체성 요소와 보편적·차별적 특질을 찾아내야 한다. 더 나아가 지역학은 세계화에 대응하여 상상의 지역공동체를 지향하는 지역국가학이자 미래학인 만큼, 세계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지역에 접합시키고 지역의 발전 논리와 이념을 개발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학은 지역 발전을 위한 현실 참여와 실천이라는 정책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다. 창조적인 지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지역의 미래자원을 발굴하고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해 지역의 현재와 미래 발전에 필요한 창조적 대안과 학술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지역학의 소명은 충북학도 예외가 아니다. 충북학이 지역 발전을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긴장감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를 향한 현안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되, 과거-현재-미래로 이어지는 통시적인 관점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인문학적 접근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최근 충북의 주요 현안과제의 하나는 철도문제이다. 이미 금년 12월 이전-충주 구간 개통을 앞두고 있는 중부내륙철도, 청주시 도심 통과가 현안인 충청권 광역 철도 건설, 진천군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건설 등은 충북지역 발전에 한 획을 그을 만큼 중요한 사안들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그 자체가 곧바로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삶 질 향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특히 지난 20세기 충청북도 역사에서 철도는 교통수단 외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경부철도는 충북을 근대화의 물결에서 소외시켰고, 충북선과 중앙선은 충북 북부권 광물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역할이 지배적이었다. 그 과정에서 충북은 장기지속적인 저발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고 도민은 철도가 주는 혜택을 받는 데 제한적이었다.

그런 만큼 충북학은 20세기의 충북 철도 역사를 성찰하면서, 앞으로 부설될 철도들이 21세기 충북도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들 철도들이 충북도민을 위한 철마가 되도록 하기 위한 역사적·인문적 대안이 무엇인지 성찰할 때이다.

더욱이 올해는 충북선 철도가 부설된지, 청주역이 개역한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100년 전 놀라움과 설렘으로 마주한 충북선 철도는 일본 침략의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면서 식민지 근대를 실어 날랐으며, 외부 자본과 인력이 서서히 청주 더 나아가 충북 전역을 잠식해 들어갔다. 게다가 충북선이 청주-충주-제천으로 운행되면서 이들 도시 중심으로 충북이 발전함에 따라, 나머지 지역은 소외되어 충북지역내 불균형이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것도 모르고 1930년대 충북선을 서해와 동해를 잇는 ‘조선횡단철도’로 하자는 일본인과 일부 친일인사들의 연장운동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하였던 충북 철도 역사였으니, 이것을 거울삼아 21세기 충북의 철도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희망대로 철도가 새롭게 부설되면, 충북의 지역환경은 많은 변화가 불가피하다. 중부내륙철도는 충주지역을 발전시키겠지만, 급격히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다. 충청권 광역철도 역시 인구이동에 따른 도시간 긴장도를 높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철도 변화를 충북 지역학의 눈으로 새롭게 읽어내고 충북의 재구조화에 유용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은 역사, 사상, 문화, 민속, 정치, 사회 등이 서로 얽혀 있는 총체적인 실체이다. 지역 연구는 모든 것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총체성 인식을 전제로 한다. 지역의 정체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학문이 동시에 하나의 지역에 접근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역을 이해해야만 한다. 이것이 지역학의 특성이자 유용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충북학은 철도문제는 물론 지역현안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과 다학문간의 융합을 통해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담론의 중심은 과거-현재-미래로 이어지는 통시적 접근과 지역민 생활양식의 총체인 문화 가치를 키워드로 삼아야 한다. 더 나아가 지역학은 지역에서 살아갈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02 대중문화와 충청북도

글: 오수민 (충북학연구소 연구원)

지자체 마스코트 캐릭터

2019년 EBS에서 만들어낸 한 캐릭터가 국내에서 신드롬을 일으켰다. ‘팽수’라는 이름의 해당 캐릭터는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얻어 다양한 프로그램에 등장함은 물론 많은 기관과 단체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더 거슬러 올라가 평창올림픽이 개최되었던 2018년에는 ‘수호랑’이 올림픽마스코트로서 전 세계로부터 큰 사랑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캐릭터는 전연령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으며 활용도가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장점에 각 지자체 역시 고유한 캐릭터를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다. 마스코트 캐릭터들은 지역을 상징적으로 이미지화하여 표현하고 있어 지역을 홍보하는 데 유용하며, 지역민의 일체감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여 각종 행사 및 사업에 활용하기 좋다.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지자체 캐릭터로는 고양시의 ‘고양고양이’를 들 수 있다. 고양시는 이 캐릭터를 일러스트, 3D이미지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매뉴얼 가이드북까지 공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하는 웹툰이 연재되고 있기도 하다.

2019년 총 247개의 지방자치 단체 중 230개가 지역 캐릭터를 보유하고 있어 93.1퍼센트의 캐릭터 도입율을 보인다.¹⁾ 즉 거의 모든 지자체가 고유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충청북도의 시군역시 대부분 마스코트 캐릭터를²⁾ 보유하고 있으며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충청북도</p>  <p>고드미/바르미</p>	<p>괴산군</p>  <p>적정사랑 윤종이 윤종이/깍정이</p>	<p>단양군</p>  <p>온달/평강</p>	<p>보은군</p>  <p>정이/송이</p>
<p>옥천군</p>  <p>송글이/송알이</p>	<p>영동군</p>  <p>소리/우리</p>	<p>음성군</p>  <p>거돌이/고추미</p>	<p>제천시</p>  <p>박달/금봉</p>
<p>증평군</p>  <p>한별이</p>	<p>진천군</p>  <p>원화랑/원낭자</p>	<p>청주시</p>  <p>생이/명이</p>	

충주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 홈페이지에서 마스코트 캐릭터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충청북도 내 지자체 마스코트 캐릭터의 유명세와 활용도는 낮다고 할 수 있다. 1999년에 제작된 충청북도 마스코트 고드미·바르미의 경우만 해도 현재 충청북도 경계에 충북을 대표하는 상징물로서 설치되어있으나 반응이 그다지 좋지 않아 2021년 도계조형물 디자인 개발 용역을 통해서 교체될 예정이다. 언뜻 캐릭터가 교체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도에 따르면 현재 도 마스코트의 변경계획은 없다.

한편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18년부터 작년까지 세 차례 우리 동네 캐릭터 대상을 개최하고 있다. 해당 대회는 지역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2020년에는 총 100개의 캐릭터가 접수되었다. 작년에는 보성군청의 'BS삼총사'(녹차몬, 꼬막몬, 키위몬)가 대상을 차지했다. 충북의 지역 캐릭터들도 참여했는데 단양의 '다소미'가 후보로 올랐으며 충주의 '충주씨'는 6등으로 장려상을 받았다. 안타까운 것은 앞서 소개한 충북의 어떤 마스코트도 본선은커녕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럼 단양의 '다소미', 충주의 '충주씨'는 어떤 캐릭터일까. 단양의 '다소미'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공식 마스코트 '온달·평강'을 제치고 단양의 대표 캐릭터로서 자리 잡았다. 단양의 특산어종인 민물고기 '쏘가리'를 모티프로 만들어졌으며, 문구제품, 핸드폰 케이스, 인형 등 각종 캐릭터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또한, 얼마 전 다소미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선착순 2만 명에게 무료로 배포했는데, 7분 만에 동나기도 했다.

'충주씨'는 수달모양의 인형탈 캐릭터로 앞서 소개한 '평수'와 맥락을 같이한다. 공식 유튜브 채널이 있으며, 농산물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본래 농산물 통합브랜드 캐릭터였으나, 현재 충주의 공식 마스코트 역할을 겸하고 있다. 특이점으로는 구체적인 스토리가 있다는 것이다. 본래 취업준비생 수달이었다가 충주에서 캐릭터 공무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하여 합격해 수달공무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콘셉트다.



충주시 캐릭터: 충주씨



단양군 캐릭터: 다소미

이처럼 실질적으로 지역을 홍보하고자 만들어진 공식 캐릭터들의 활약이 미약한 실정이다. 충북지역의 마스코트 캐릭터들을 충주의 '충주씨', 단양의 '다소미'처럼 현대적 감각으로 새로 정비한다면, 더 많은 사랑을 받는 효용성 높은 캐릭터로 충분히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1) 박소연, 「지방자치단체 캐릭터 디자인 연구-독창성, 친밀성, 상징성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한국디자인포럼, 2019, 45쪽
2) 지자체들은 지역 '캐릭터'라는 용어와 지역 '마스코트'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있다. 이하 마스코트 캐릭터로 통용하고자 한다.

03 한시로 읽는 충북의 문화공간

글: 최병철(충북학연구소 전문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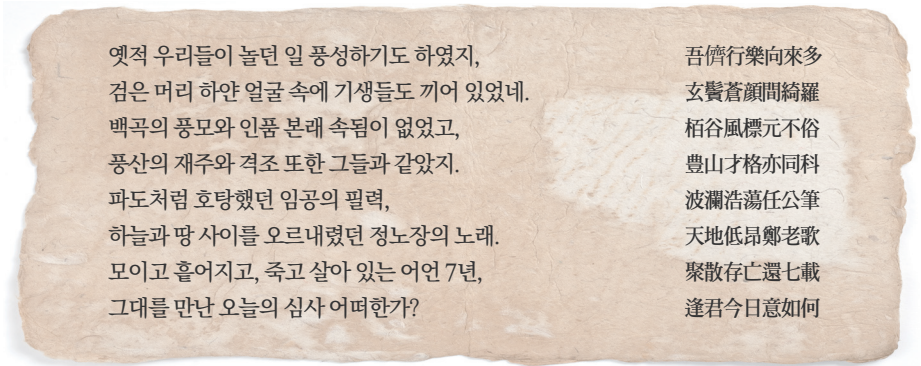
불우(不遇)의 천재시인 만주(晩洲) 홍석기(洪錫箕)와 후운정(後雲亭)

홍석기(洪錫箕, 1606~1680)는 조선 중기 관료이자 시인으로 본관은 남양(南陽), 자(字)는 원구(元九), 호(號)는 만주(晩洲), 후운(後雲)이다. 청주시 미원면에서 태어났으며, 할아버지는 홍순각(洪純愨), 아버지는 홍이중(洪頤中)이다. 할아버지 홍순각은 섬계 이잠의 제자이며, 사위이다. 경주이씨 집안인 이잠과 그의 아들 서계 이득윤은 당시 청주 지역의 교육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연으로 두 집안은 많은 교류가 있었으며, 홍석기도 서계 이득윤의 문인록에 수록되어 있고, 이득윤의 아들인 둔헌 이홍유, 손자인 만헌 등과 교류하였다. 어려서 낙주(洛洲) 구봉서(具鳳瑞)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성년이 된 이후에는 계곡 장유의 문하에도 출입하였다.

시작에 능한 천재시인

홍석기는 조선 중기 천재시인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의 생애를 살펴보면, 동명 정두경, 백곡 김득신, 휴와 임유후, 구당 박장원, 현목자 홍만종 등 당대 시명으로 유명한 인물들과 교류하며 시를 매개로 사귀었다. 그의 시를 짓는 능력은 조선 후기 시화집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다. 특히 그는 시를 지음에 막히는 경우가 없었고 매우 빨리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며 강운(強韻)과 난운(難韻)에도 능숙하게 창작할 수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다음의 시들에서 홍석기의 교류와 시재를 확인할 수 있다.



옛적 우리들이 놀던 일 풍성하기도 하였지,
검은 머리 하얀 얼굴 속에 기생들도 끼어 있었네.
백곡의 풍모와 인품 본래 속됨이 없었고,
풍산의 재주와 격조 또한 그들과 같았지.
파도처럼 호탕했던 임공의 필력,
하늘과 땅 사이를 오르내렸던 정노장의 노래.
모이고 흩어지고, 죽고 살아 있는 어언 7년,
그대를 만난 오늘의 심사 어떠한가?

吾儕行樂向來多
玄鬢蒼顏間綺羅
栢谷風標元不俗
豐山才格亦同科
波瀾浩蕩任公筆
天地低昂鄭老歌
聚散存亡還七載
逢君今日意如何

이 시는 홍만종의 「순오지(旬五志)」에 기록된 시로 홍석기가 1675년경 6, 7년 전의 당대 이름난 시인들과 어울렸던 한 때를 회상하며 읊어 홍만종에게 준 시이다. 시 속의 백곡(栢谷)은 김득신, 풍산(豐山)은 홍만종, 임공(任公)은 임유후(任有後), 정노(鄭老)는 정두경(鄭斗卿)이다. 당시 정두경은 70대의 노인이었으며, 김득신, 임유후는 역시 이순을 넘긴 60대의 노인들이다. 홍만종은 이들의 손자와도 같은 새파란 20대 청년이었다. 홍석기는 시에서 재주와 격조면에서 볼 때 홍만종을 자신들과 같다고 표현한 것을 보면, 그들간의 교류(交遊)에서 나이가 크게 좌우한 것 같지는 않다. '시(詩)'가 그들 사이에 놓여있던 연문상의 장벽, 그리고 그에 따른 의식상의 장벽까지도 허물었기에 가능하였을 것이다.

천추의 슬픈 원망소리 들을 수가 없구나.	千秋哀怨不敢聞
지는 달빛은 푸르고 온 골짜기엔 구름이 가득하네.	落月蒼蒼萬壑雲
술동이 앞에는 한 곡조도 타지 마시오.	莫向樽前彈一曲
동방에도 또한 漢昭君이 있도다.	東方亦有漢昭君

이 시는 김득신의 「소화시평(小華詩評)」에 기록되어 있는 시이다. 홍석기가 일찍이 송약(개성)의 운거사에 친구들과 놀러 갔다가 친구들이 홍석기의 시재(詩才)를 시험하고자 어려운 운자를 불러 시를 짓게 했다고 한다. 당시 친구들은 풍경이 울리는 짧은 시간에 착운(窄韻)인 '문(文)'자에 해당되는 운자를 불렀다. 홍석기는 짧은 시간에 위와 같은 시를 그려내면서도 당시 사람들이 민감하게 여기던 의순공주의 정략적 결혼문제를 한소군의 고사에 빗대어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문학적 기교가 돋보이고 있다. 이 외에도 조선 후기 시화집인 「소화시평」, 「시평유보」, 「기아」, 「수촌만필」, 「순오지」, 「종남총지」 등에는 그의 시 짓는 재주와 관련된 일화와 시들이 약간 수록되어 있다.

**불우한
벼슬살이**

홍석기는 약관의 나이에 진사에 합격하고 문과에 장원하였으며, 이후 사간원의 정언 등을 여러 차례 역임하는 등 관직에 나간 초기에는 전도유망한 인재였다.

사흘 동안 휘장 들며 고양에 말 머무니,	檐帷三日駐高陽
화극이며 홍기예다 잔치 자리 한바탕	畫戟紅旗一宴張
천리라 영남을 순찰하는 사신이요,	千里嶺南巡察使
십 년 문하에 장원한 낭이로다	十年門下壯元郎
눈 녹자 관각에 매화가 이르고,	雲霄官閣梅花早
봄이 오니 꽃자리엔 계화가 향기롭다.	春動華筵桂萼香
세간에는 이런 모임 없다고 말을 마오,	爭道世間無此會
인사들이 시장을 외지 않게 할 수 있나	已令人土誦詩章

「高陽酒席 陪具按使使洛洲 進退呼韻」 「晚洲遺集」

이 시는 1641년 홍석기의 스승 낙주 구봉서가 영남관찰사로 있을 때 홍석기가 정시(庭試)에 장원하여 신은(新恩) 인사차 가서 지은 시이다. 어린 시절 글을 가르치던 스승은 영남의 관찰사가 되고, 제자는 과거에서 장원하였으니 사제지간에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는가? 홍석기는 이후 간원(諫院, 사간원)으로 들어가 정언(正言)을 무릇 일곱 여덟 번을 역임하였다.

그러나 1645년(인조 23)에 만언소(萬言疏)를 올려 해운판관(海運判官)으로 좌천되었다가 결국 파직되어 거의 십 년을 벼슬길에 나가지 못했다. 1654년(효종 5)에 예조정랑으로 다시 등용되고, 문신정시에 도 뽑혀 인동부사에 제수되었다. 하지만 대간에서 벼슬이 갑자기 올라간다는 이유로 면직되었다. 이후 1656년(효종 7)에 성천부사, 양재찰방, 1659년(효종 9) 단양군수, 1661년(현종 2) 결성현감(結城縣監), 1665년(현종 6) 해주목사, 1667년(현종 8)에 서천군수, 제주목사, 1669년(현종 10) 영광군수, 성천부사(成川府使), 남원부사 등 외직(外職)을 전전하며 벼슬길을 마감했다. 홍석기는 재등용 된 이후로는 당쟁으로 얼룩진 당시 사회에서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며 더 이상 중앙의 관직에 진출하지 못하였다.

세상일이 자꾸 어그러졌던 홍석기는 귀거래를 염원하게 된다. 벼슬길 외직으로만 돌아보니 현실에 대한 불만은 더욱 커지고 여기에 타향살이에 대한 고달픔이 더해지면서 그는 공공연히 그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시냇가 초가집에 대나무 사립이 희고, 고향의 봄을 생각하니 달빛에 마음이 설렌다. 집사람은 정히 돈을 잡고 짐을 칠테지만, 꽃 지는 강남의 나그네는 아직 돌아가지 못하네.	溪上茅廬白竹扉 故園春夢月依依 家人定把金錢卜 花落江南客未歸 「思歸」「晩洲遺集」
--	--

그가 호남(湖南)의 어느 지역에 부임해서 돌아갈 것을 생각하며 읊은 시이다. 달이 뜬 밤에 고향의 집을 생각하고 있다. 시냇가에 접해 있는 초가집엔 대나무 사립문이 희고, 그곳의 봄을 생각하자니 달빛에 마음이 설렌다. 집에서는 바로 앉아 돈을 잡고 언제 돌아올지 점을 치면서 기다리고 있지만, 강남에 홀로 있는 나그네는 봄꽃이 지고 있는데도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지방관으로 임지를 떠돌며 고향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다. 홍석기는 1673년 남원부사를 끝으로 벼슬을 내놓고 상당(청주)의 고향 판교(板橋, 미원 근방)로 돌아왔다.

고운 최치원의 뜻을 좇은 후운정(後雲亭)

벼슬을 그만 두고 고향으로 내려온 홍석기는 이후 고향 근처인 검단산(檢丹山, 청주시 미원면)의 최고운(崔孤雲, 최치원)이 옛날 놀던 곳을 찾아 작은 정자를 짓고 후세의 고운(孤雲)이라는 뜻을 취하여 후운정(後雲亭)이라 편액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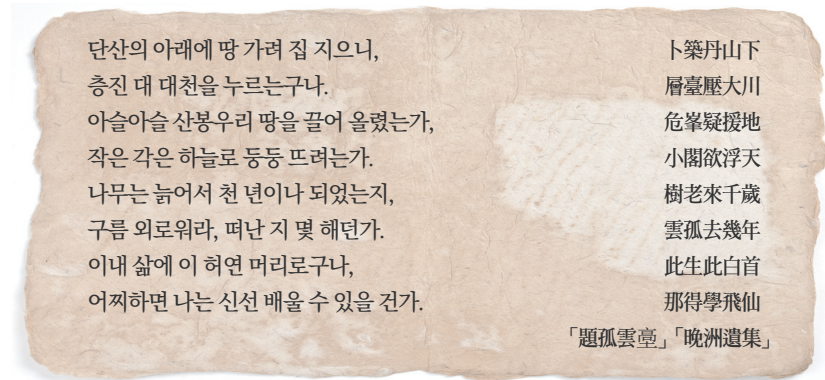
그가 후운정을 지은 곳은 현재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계원리이다. 이 일대 30리는 서계 이득윤이 주자의 무이구곡(武夷九曲)과 비슷하다고 하여 구곡이라 명명한 곳이다. 현재 옥화구곡은 박대천 하류에서부터 1곡 만경대, 2곡 후운정, 3곡 어암, 4곡 호산, 5곡 옥화대, 6곡 천경대, 7곡 오담, 8곡 인풍정, 9곡 봉황대로 알려져 있다. 이득윤의 후손인 이필영, 이규익의 ‘옥화구곡’시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옥화구곡은 이득윤의 구곡 설정 당시와 차이가 있다. 2곡 후운정은 이득윤 사후 1670년대 홍석기가 지은 정자이기 때문에 이득윤 생시에는 없던 지명이다.

홍석기 후운정을 지은 뜻은 그의 문집에 수록된 「후운정기(後雲亭記)」, 그의 막역한 친구인 백곡 김득신의 「후운정기(後雲亭記)」, 구당 박장원의 「후운정서(後雲亭序)」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김득신의 「후운정기」 일부이다.

(생략) 옛적 고운 최치원이 산수를 좋아하여 이 절벽에서 노닐어 절벽이 고운(孤雲)의 명칭을 얻게 되었다. 그 당시 최치원이 스스로 이름한 것인가 아니면 후인들이 최치원을 그리워하여 이름한 것인가. 내 벗인 홍원구(홍석기)가 세상에서 쓰이지 못하고 산수를 두루 관람함이 많았는데 이 절벽 위에 작은 정자를 지었다. 나는 홍원구의 사록문과 시가 최치원과 더불어 비슷하다고 여기니 대저 최치원을 사모하여 그러한 것인가. 시절에 뜻을 잃고 산수를 방랑함이 최치원과 또한 서로 닮았다.

「後雲亭記」「柏谷集」

고운 최치원은 12세에 당나라에 유학하여 벼슬을 하다가 신라로 금의환향, 자신이 배운 학문을 널리 퍼 보려는 뜻을 가졌었다. 그러나 그 뜻은 용납되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불우한 처지를 한탄하며 다시는 벼슬에 뜻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산림(山林)을 찾아다니며 글쓰기와 사서공부에 힘쓰는 한편, 풍월(風月)을 읊는 것으로 날을 보냈다. 그의 행적은 홍석기가 후운정을 지은 곳에도 전해지고 있다. 홍석기는 최치원의 이러한 행적이 세상에서 제대로 쓰이지 못한 자신의 과거와 비슷하다고 느끼고 동질감을 느낀 것 같다. 홍석기는 이러한 최치원에 대한 사모의 정을 시로 표현하고 있다.



단산의 아래에 땅 가려 집 지으니,
층진 대 대천을 누르는구나.
아슬아슬 산봉우리 땅을 끌어 올렸는가,
작은 작은 하늘로 뚝뚝 뜨려는가.
나무는 늙어서 천 년이나 되었는지,
구름 외로워라, 떠난 지 몇 해던가.
이내 삶에 이 허연 머리로구나,
어찌하면 나는 신선 배울 수 있을 건가.

卜築丹山下
層臺壓大川
危峯疑援地
小閣欲浮天
樹老來千歲
雲孤去幾年
此生此白首
那得學飛仙

「題孤雲臺」「晚洲遺集」

검단산 아래에 최치원이 노닐었다는 땅을 가려 정자를 지으니 정자는 마치 하늘에 뚝뚝 떠 있는 듯하다. 주위에 나무는 이미 천년의 세월을 지내 온 것 같은데, 그럼 고운(孤雲)은 떠난 지 얼마나 되었을까? 나도 이제 허연 머리로 늙었으니 이 대(臺)에 올라 어찌면 하늘 나는 신선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최치원 이 호산(湖山)의 아름다움을 찾아 이곳에 찾아왔듯이, 자신도 아름다운 이곳에 이끌려 찾아왔으니 그때의 고운이나 지금의 자신은 다를 바가 없다. 최치원이 신선이 되어 떠났다고 하니 자신도 신선이 되어 보고 싶은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과거 조선시대에 건립된 누정이 휴식과 은거, 강학과 수양의 공간으로 널리 활용되었듯이, 홍석기가 건립한 후운정 역시 다양한 기능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후운정은 홍석기에게 휴식의 공간이었으며, 창작의 산실이 되었다. 그리고 후운정을 찾은 수많은 시인묵객들을 만나는 교유의 장소였다. 홍석기에게 있어 후운정은 신선이 된 최치원을 닮고자 했던 공간이었으며, 지역 인물들의 교류공간이었다. 홍석기는 후운정을 건립한 후 주변의 인물들을 초대하여 자신의 공간을 자랑하곤 하였다. 「후운정기」를 쓴 백곡 김득신을 비롯하여, 구당 박장원, 이득윤의 아들 둔헌 이홍유, 우암 송시열 등이 후운정을 방문하고 시를 남기고 있다.

우암 송시열의 경우 홍석기가 후운정을 짓고 만년을 보낼 당시 화양동에 머물고 있었다. 후운정은 화양동과 거리가 30리 정도 떨어져 있다. 이때 홍석기는 송시열을 찾아 자주 왕래하였으며, 서로 학문의 이치를 토론하고 고금의 일을 담론하고, 시를 주고받으며 마음을 터놓고 교류하였다. 이들이 나눈 담론의 주된 주제는 '존주대의(尊周大義)'였으며, 이들은 하루 빨리 중국이 오랑캐의 지배에서 벗어나 정통을 회복하기를 기원하였다. 당시 송시열은 민정중이 연경에서 구해 온 명나라 의종황제의 어필 '비례부동(非禮不動)'을 화양동 바위에 새기고 환장암을 지어 관리하고자 하였으나 미처 끝내지 못하고 유배를 갔다. 이때 홍석기는 이 일을 살피고 '환장암행'이라는 장편의 시를 짓기도 하였다. 우암 송시열은 홍석기가 세상을 떠난 다음 해인 1681년 4월 후운정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

해외에서 떠돌며 돌아오는 길 괴롭고 더디더니,
이제야 돌아와 부질없이 옛날 지은 시를 읊조리네.
가련타, 형초(荊楚) 군대 앞에 보낸 격문이며,
천추토록 지사의 슬픔으로 남았구나.

海外飄搖歸苦遲
今來空詠舊題詩
最憐荊楚軍前檄
留作千秋志士悲

〈辛酉四月四日過後雲亭感舊〉「晩洲遺集」

이 시는 1680년 경신환국으로 오랜 유배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송시열이 화양동을 방문하는 길에 홍석기의 후운정을 찾아 지난 일을 추억하며 지은 시이다. 다시 돌아오니 정자의 주인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다. 다만 지난 날 서로 읊조리던 시만 남았을 뿐이다.

만주 홍석기는 조선 중기 천재 시인으로 평가 받으며, 당시 시단에서는 때로는 그 첫 머리를 사양하곤 하였다. 그러나 정사에서 장원을 하며 승승장구할 것만 같은 벼슬길은 불우하여 외직을 전전하였다. 그는 이러한 평생의 소회를 시로써 표현해 놓았으며, 그의 작품은 후손들에 의해 편찬된 「만주유집」에 800여 편의 시로 정리되어 있다. 만년에 세상의 시사에서 벗어나 자연에 은거하여 신선이 되고자 지었던 후운정은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00여 년도 되지 않아 폐허가 되고 터만 남았다. 하지만 그의 뜻이 담긴 후운정은 세인들의 기억에 남아 종종 지나는 이들의 시심을 일으켰고, 옥화구곡의 2곡으로 남았으며, 그 이름은 마을의 이름으로도 전하고 있다. 다음은 저촌(樵村) 심육(沈鎔, 1685~1753)이 1744년 유람길에 후운정을 지나며 지은 시이다.

정자가 어느 해에 없어졌는가?
쓸쓸히 옛 터만 남았구나.
노송(老松)은 여전히 우뚝하고
유수(流水)엔 맑은 물결 일렁이네.
잠깐 앉아도 정다운 이야기요
나직이 읊조려도 또 못난 시라네.
마을 안에 도리어 술 있다면
누차 잔질해도 사양할 수 없네.

亭子何年廢。
蕭然有古基。
老松猶偃蹇。
流水覺清漪。
少坐成良晤。
微吟又拙詩。
村中還有酒。
屢酌不容辭。

「過所謂後雲亭 亭廢可惜」 「樵村集」

최근 청주시에서는 옥화구곡 관광길 홍보와 활성화를 위해 ‘옥화구곡 생태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용역을 발주하여 수행기관을 선정하였다. 사업의 주요 내용에는 유교문화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옥화구곡내의 유교문화로는 옥화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서계 이득윤의 강학 공간, 옥화서원, 함양박씨 효자문 등이 있다. 그러나 옥화구곡에 내재되어 있는 유교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아직도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홍석기를 비롯한 유학자들의 시 창작 등 풍류 문화를 좀더 구체적으로 발굴한다면, 옥화구곡의 유교문화가 더욱 풍성해지지 않을까 한다.

04

로컬스토리

글/그림: 오수민 (충북학연구소 연구원)

단양, 죽령 산신당과 다자구할미 전설

전설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주로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하며, 지역에 실존하거나 실존했다고 믿어지는 증거물을 대상으로 만들어집니다. 1986년 간행된 「전설지」는 충북지역의 전설 620편을 실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로컬스토리”는 해당 자료집에 실린 충북의 전설을 만화로 소개하는 공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전설은 ‘죽령 산신당과 다자구 할미’로 단양을 배경으로 합니다.



* 들자구야: 덜 자고 있다.
* 다자구야: 다 자고 있다.





할머니가 소리치자 숨어있던 관군들이 몰려왔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도둑들을 모두 소탕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후 할머니는 찾을 수 없었다.

또 다자구 할미에 대한 노래가 기록으로 전해진다.



사람들은 할머니를 다자구할미라 부르고 다자구 할미가 죽어서 죽령산신이 되었다고 믿고 있다.

다자구야 들자구야
 언제가면 잡나야까
 들아죽야 들자구야
 지금오면 안됩니다
 다자구야 다자구야
 소리칠때 기다리다
 다자구야 다자구야
 그때와서 잡으라소

05 디스커버리

충북

History
Geographic

제천 의림지 역사박물관 소장 우암 송시열 초상, 보물 지정



2021년 6월 23일 문화재청에서 의림지 역사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송시열 초상을 보물로 지정했다.

해당 ‘송시열 초상(宋時烈 肖像)’은 조선 중기 정치와 학문의 성리학의 대가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의 모습을 그린 18세기 초상화로 제천 황강영당(黃江影堂)에 300년 넘게 봉안되어 온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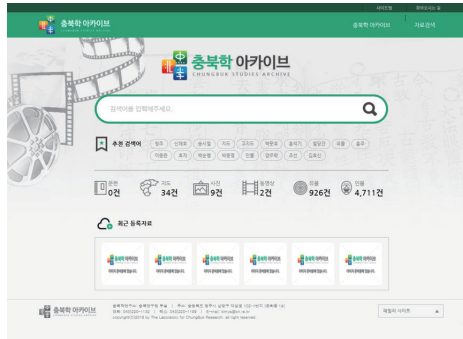
작품 상단에는 ‘우암 송선생 칠십사세 초상(尤庵宋先生七十四歲 眞)’이라는 화제가 적혀 있어 해당 그림이 74세 때 송시열의 모습을 담고 있음이 확인된다. 오른쪽에는 송시열의 초상을 문인화가 김창업(金昌業, 1658~1721)이 그렸음을 밝힌 화상찬(畫像讚)이, 왼쪽에는 권상하(權尙夏, 1641~1721)가 짓고 권상하의 제자 채지홍(蔡之洪, 1683~1741)이 필사한 화상찬이 적혀 있어, 이 작품이 1680년 23세의 김창업이 74세의 송시열을 그린 초본(初本)을 참조해 후대에 그려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송시열 초상은 송시열 초상은 안동권씨문순공파 중종 소장품으로 현재 의림지 역사박물관에 기증의사를 밝혀 기증 절차를 밟고 있으며, 추후 제천시 소장 문화재로 될 예정이다.

출처: 제천시청, 문화재청

06 충북학연구소 동정

충북학 아카이브



▶ 충북학아카이브 홈페이지 보수

올해 충북학아카이브 홈페이지를 보수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려웠던 검색 시스템을 개선하고, 상세검색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검색 결과를 시간, 가나다순으로 정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검색 결과 넘버링, 이미지 확인 레이아웃 변경 등 더 많은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비상임연구원 위촉

충북학아카이브 내용 업로드를 위해 비상임연구원을 위촉했습니다. 충북학아카이브 사이트에 충북의 누정 자료가 새로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충북학포럼 개최예정

올해 충북학포럼을 지역문화원 진흥방안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작년과 마찬가지로 최소 인원을 대동하여 온라인으로 실시간 방송하는 방식을 취할 예정입니다. 충북학연구소의 다양한 영상자료와 포럼 생방송은 충북학연구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7 충북 지역학 별거 있슈

충청북도

충북문화재연구원 중원역사문화권 관련 학술대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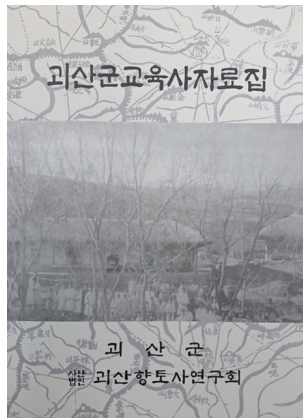
4월 30일 금요일 충북문화재연구원에서 “중원역사문화권의 위상정립과 미래비전 설정”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 학술대회는 14시 30분부터 18시까지 유튜브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진행되었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기존의 중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영산강, 강화의 7개 권역을 고구려, 백제, 신라, 사야, 마한, 탐라 6개로 변경된 것에 따라 개최되었다. 중원지역이 삭제된 것이다. 6명의 발표자가 참여했으며 발표주제는 다음과 같다. 충북대학교 차용걸 명예교수가 “중원역사문화권 설정의 당위성”, 충북대학교 성정용교수가 “중원역사문화의 성격과 의미”, 문재범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장이 “고고자료를 통해 본 중원역사문화권의 조사와 연구현황”, 충북대학교 양시은 교수가 “역사문화권 정비법에 따른 중원역사문화권의 활용방안”, 국토연구원 이순자 선임연구원이 “국토 균형발전과 품격제고를 위한 중원역사문화권 설정의 필요성”, 충북연구원 정삼철 수석연구원이 “중원역사문화권의 관광위상 정립”을 주제로 발표했다. 2부에서는 토론이 이어졌다.



괴산

괴산향토사연구회 ‘괴산군교육사자료집’발간

5월 4일 (사)괴산향토사연구회는 괴산군의 예산 지원을 받아 개인이 소장한 교육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단행본 “괴산군교육사자료집”을 발간했다. 책에는 박세무(박세무)의 아동교재 “동몽선습”, 이문건(이문건)의 육아일기 “양아록”, 사주당 이씨(사주당 이씨)의 태교 교과서 “태교신기(태교신기)”, 괴산 출신 이원금(이원금)의 한문교과서 “초등여학독본(초등여학독본)”이 실려있다.



청주

문화재 도난 논란 “청주 운용사 백의관음보살후불도(淸州 雲龍寺 白衣觀音菩薩後佛圖)”



출처: 문화재청

지난 3월 12일 충북 문화재 자료 97호로 지정된 ‘청주 운용사 백의관음보살후불도’가 도난 논란에 휩싸였다. ‘청주 운용사 백의관음보살후불도’는 19세기 말~ 20세기 전 반 마곡사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활동한 화승 금호(錦湖) 약효(若效)가 1904년에 조성한 불화로 관음보살들과 제자들, 사천왕을 표현한 작품으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빼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충주

충주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출범



출처: 충주시청

6월 9일 중앙탑회의실에서 시의원, 문화예술단체, 유관기관단체, 문화 분야 전문가 등 15인으로 구성된 문화도시 추진위원 및 3명의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문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출범했다. 추진위는 자문위원 3명과 함께 앞으로 2년간 법정 문화도시 정책 취지와 관련 조례에 따라 충주 문화도시의 정책 방향과 조성계획을 심의하고 자문하게 된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문화와 예술을 기반으로 지역 본연의 특색을 지닌 문화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고유한 문화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핵심사업으로 법정문화도시 지정시 5년간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한 총 200억 원을 투입해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를 만든다. 2021년 제4차 문화도시 지정 신청은 올해 6월까지이며 22년 하반기에 지정될 계획이다. 2019년 지정된 도시로는 경기 부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제주 서귀포시, 부산 영도구로 7개소가 있다.

“충주학연구소” 개소 예정

충주문화원에서는 충주의 정체성 확립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충주학연구소를 설립하여 개소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오는 8월 1일 정식 개소를 목표로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전예성문화연구회장 김병구 씨를 소장으로 임명하였으며, 연구소 운영을 위한 인력(학예사)을 모집하고 있다. 충주학연구소는 향후 충주시민 누구나 소통할 수 있고 활용 가능한 충주학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역동성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및 참고: 괴산향토사연구회, 버려지고 남은 소중한 교육자료 모았다, 뉴시스.

충북 문화재 자료 97호 ‘백의관음보살후불도’ 소유권 논란, 한겨레
충주시청, 보도자료.

2021 충북학 제23집 원고 모집



충북학연구소에서 매년 '충북학'을 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충북학 제23집에 간행할 원고를 받고 있으니 많은
투고 바랍니다.
충청북도의 역사, 문화와 관련된 새로운 해석과 재조명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 게재가 가능하나 편집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쳐 게재여부를 통보해 드립니다.

모집 정보 모집분야 | 충북관련 연구논문 및 비논문 원고 모집 **모집 대상** 연구자, 대학원생, 대학생, 일반인

분야	분량
연구논문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 (한글 파일로 제출)
충북학 관련 연구논단(논문과 저널의 중간수준)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 (한글 파일로 제출)
충북학 관련 저널(문화초점, 인물탐구, 자료소개, 서평 등)	

모집 일정 원고마감 | 2021년 10월 22일(금)
논문심사 | 10월 26일 ~ 29일
결과통보 | 2021년 11월 8일(월)
발간시기 | 2021년 12월

제출 방법 이메일 접수
osm9677@cri.re.kr

문 의 | 043) 220-1161~2

- 원고모집**
3.31.~10.22.
 - 심사**
10.26.~29.
 - 심사결과통보**
11.8.
 - 발간 및 발송**
12.15.
- * 자세한 사항은 충북학연구소로 문의 바랍니다.
* 채택된 원고에 한하여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The Chungbuk Studies Institute

충북의 정체성 구현과 지역문화 창달을 선도합니다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

전화 043.220.1162

홈페이지 <http://csi.cri.re.kr>

충북학 누리

대중문화와 충청북도

지자체 마스코트 캐릭터

한시로 읽는 충북의 문화공간

불우(不遇)의 천재시인

만주(晩洲) 홍석기(洪錫箕)와 후운정(後雲亭)

로컬스토리

#죽령_산신당 #다자구할미

디스커버리 충북

제천 의림지 역사박물관 소장 우암 송시열 초상, 보물지정

충북 지역학 별거 이슈

“충주학연구소” 개소 예정